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6, 로마서 3:24-5:11

© 2024 크레이그 키너 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24-5:11의 여섯 번째 세션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멸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이 바울 이전의 전통인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바울이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물로서, 즉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종종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은인이 베푸는 것이었고, 은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은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그는 여기서도 구속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구약의 배경을 지닌 많은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은 노예 해방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연상시킵니다. 새 출애굽의 개념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에는 이와 관련된 동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값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초기 그리스어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시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의 문맥은 예수의 피가 그러한 대가로 암시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던 생각입니다. 구원. 우리의 해방은 미래에 완성될 로마서 8장과 23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14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누가복음 21장 38절, 보라 너희 구원이 가까왔느니라.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미-아직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상속 재산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이 일이 결실을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특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해야 할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6장 6절부터 23절까지, 7장 25절, 8장 15절, 21절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25절에서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인지를 뜻하는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 힐라즈 모스(hilazmos), 그리고 이 문맥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25절의 힐라스테리온은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킨다.

출애굽기 25:17-22의 그리스어 번역판에서는 이 표현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 언약궤를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 오리겐, 루터, 틴데일에 의해 인정되었으므로 그 뒤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비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언약궤의 덮개와 같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지만 속죄일 의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급에 따른 것이므로 아마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장소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항상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골로새서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의 경우에도 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항상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죽음보다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피를 사용합니다. 즉, 그의 피는 흘렸는데, 그의 피는 무엇을 위해 흘렸는가? 대속죄일을 맞아 매년 이 성소를 희생의 피를 통해 성별하게 되었습니다(레위기 16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인 CH Dodd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약성서에서 화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예를 인용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예를 생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은 진노를 달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고대 근동에서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 말은, 히타이트 사람들은 이것 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피를 희생의 죽음으로 보는 성막의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화해와 정결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베드로전서 1:2.19, 요한일서 1:7).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언약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24 장 5절과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 9장 18-20절, 10장 29절, 12장 24절, 13장 20절에서 언약을 시작하는 그의 피, 즉 희생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소 피비린내 나는 책이다. 어떤 사람들은 힐라스테리온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 마카베오서 17:22(아마도 1세기의 것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인간의 죽음을 통해 제공되는 속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동일한 언어인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합니다. 앞 구절인 마카베오 4서의 문맥은 대속물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지불입니다.

다른 용어가 있지만 순교자의 속죄 사상은 이보다 먼저 마카베오서 7장과 마카베오서 4서 6장에 나타난다. 한 사람의 고난이나 여러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상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십시오. 따라서 이 개념은 당시 유대교에서 이미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김진태는 실제로 여러 고대 유대교계에서 속죄의 개념에 관해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마틴 헨겔(Martin Hengel)은 그곳, 특히 그리스계에서 일부 문제를 다루었지만 김진태(Jinte Kim)는 특히 유대인계에서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글썄, 그것이 속죄라는 개념은 로마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 상황에 적합합니다.

로마서 1:18, 2.5, 8, 3:5, 4:15.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진노에 관해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진노가 우리의 진노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노는 공의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어쩌면 진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진노가 아니며 그러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5장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켜 놓았다고 말합니다. 8장 3절에서는 페리 하마르티아스(perī hamartias) 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만, 70인역에서 번역된 표현이 사용된 방식을 고려하면 8장

3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희생의 죽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말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그리스도로 말하고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유월절을 제사로 이해하였다. 요세푸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합니다(25절). 파레스스는 형벌을 연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뭔가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 함께 바로잡을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심판의 선고가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공의와 언약의 신실하심이 모두 포함됩니다(1:17, 18, 3장 3절부터 8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므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3장 27절). 율법의 목적이 행위이면 자랑할 수 있거니와 율법의 목적은 믿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율법의 목표가 믿음과 믿음을 통한 의인 로마서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 전체에서 율법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증합니다(3:21-23). 그는 31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르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속과 속죄와 같은 율법 자체와 토라 자체에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24절과 3장 25절에서 구속과 속죄일인 욘 키푸르 (Yom Kippur)에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궤의 속죄소인 힐라스테리온으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3:28. 글쎄, 법에 대한 대조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법에 의해 우리가 옳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원리로 번역합니까? 그러나 문맥상 노모스는 법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그 의미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더 큰 논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노모스, 어떤 법으로? 자랑의 법, 행위의 법, 행위에 관한 율법을 가까이하여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 율법에 대한 믿음의 접근,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 예를 들어 로마서 4장의 주제가 될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한 것입니까?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법이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린 판결일 뿐입니다.

9장 31절과 32절, 10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구절은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단순히 정죄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요점은 율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3:9, 22).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3시 30분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초석인 쉘마(Shema)이다. 쉘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Deut. 6:4]. 오 이스라엘아,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신학적 함의를 이끌어낸다. 그는 이것을 다른 곳에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인류에게 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29절, 30절).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권이나 마지막 때의 승영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적용했습니다.

그럼 글쓰기 수단이 따로 있는 걸까요? 유대인은 신실함, ek pisteos, 하나님의 믿음 또는 신실함, 이방인은 믿음 또는 신실함을 3:30에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전치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실함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신실함이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문체의 변화는 수사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수사학에서도 매우 흔하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주석가들은 때때로 이런 종류의 세부 사항을 다루려고 애쓰지만, 당신은 다른 고대 문헌을 읽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문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3:22). (3:19-20) 3:31은 바울의 논증의 중심을 제공합니다. 율법은 3장 21절과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길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율법, 즉 사람들이 토라에 대해 말할 때 기본적인 예, 즉 4장 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포함하는 창세기를 포함하는 토라에서 이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장 나누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을 나누는 일과 지금 절을 나누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저런 구절로 전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처럼 그 일부를 인용 하고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지 알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렵다.

영어에는 그 전체 의미 범위를 포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4:1-8). 3:31, 믿음은 율법을 확립합니다. 그는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을 증거한 3장 21절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인 핵심 텍스트에 대해 미드라시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3장 27절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4장 2절의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개인적인 공로보다는 신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3:28, 4:3부터 5.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할레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레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3.29와 3.30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9부터 12까지, 16부터 18까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에베소서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는 이 편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핵심적인 도덕적 모델입니다.

그는 4:1에서 지적하듯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조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때때로 조상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용어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Mekilta , Rabbi Ishmael의 Mekilta , 출애굽기의 Mekilta 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가 누구의 공로로 갈라 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이 시기에 그렇게 정확한 용어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그를 이방인 개종자의 모범으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기 여러분이 들어본 내용이 아마도 이방인을 위한 개종의 모델일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모델 증인, 랍비 학가다, 랍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모범적인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의 믿음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행위의 모델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초였습니다. 창15:6 그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구원의 믿음은 매우 불완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임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11장에서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손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믿으며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어, 아니, 하느님, 씨앗을 돌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땅은 어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바로 다음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이야기하기로 선택한 바로 다음 일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사라를 하갈을 일종의 대리모로 제안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였다고 아직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많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문화적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수년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네 씨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청년에게 나와 그 아이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삭에게 번제할 땅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만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좋은 유사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창 15:6). 이것은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감으로써 이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직 창세기 22장의 믿음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은 기본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를 행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법은 작동합니다.

개종자는 어떤 요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글썄, 당신은 이것, 이것,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문화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정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의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람은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삿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6장과 23절에서 죄의 삿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은 헬라어로 계산 또는 설명이라는 단어인 로지조마이(logizomai)를 강조합니다. 부기 유형의 용어입니다.

회계용어입니다. 당신이 회계사라면 이 말에 웃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산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받는 용어는 4장에서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당신은 결코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알죠? 그는 다윗을 시편 기자로, 증인으로 인용합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의 저자로 여겨졌는데, 특히 머리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증인으로 인용하고 게셀 하샤바(Gezer HaShavah) 를 사용하여 4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산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시편 32편, 죄악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 1, 2, 3절의 문맥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계산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들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롬 4:1),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맥락 역시 고대의 해석학적 기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해석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할례를 받기 1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의 이스마엘의 잉태보다 앞섰고, 창세기 17장 25절에서는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언약의 일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기 적어도 1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4장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족 대 영적 조상. 랍비들은 조상, 적어도 나중에 랍비들은 조상의 공로가 축복을 위해 조상의 공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잘 해냈습니다.

당신은 그 장점 중 일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모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적 조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들, 부모처럼 모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속자들은 단순히 할례의 외적인 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토세프 타에서 했던 것처럼 할례를 도장으로 말합니다. 바라코트 . 바나바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언약의 표였습니다(창 17:11).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세례로 대체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세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을 언급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의 인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서 영의 인이 세례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2세기의 헤르마스(Hermas)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세요. 그러나 그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6장에서 세례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글썬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개종자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7장 10-14절에 근거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보고 '흠, 바울이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바울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정통 유대교로 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뿐이지만 토라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람이 할례받지 않았을 때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있기 몇 세기 전이었습니다(롬 4:13).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의한 것인지, 마음에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바울 사이를 오가면서 나는 바울이 실제로 율법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바울의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랍비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랍비의 반대에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바울이 자신의 반대에 대답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11절에서 할례는 단지 그의 믿음의 외적인 표나 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4:11).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할례, 즉 2:25-29에 나오는 영의 은사에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의 언어, 인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할례, 인을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애굽기 28장 11절, 21절, 36절에서는 그렇게 사용됩니다. 언약의 표, 음, 창세기 9장 12, 13, 16, 17절에서는 무지개가 언약의 표였습니다. 언약, 무지개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습니다(13-25절). 하나님의 원래 약속 계획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보다 더 넓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로마서에 대한 매우 훌륭한 짧은 주석을 쓴 Charles Talbert는 다양한 유대인 사상가들이 일부 성경적 언약을 강조하면서 다른 언약을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대우는 더 이상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여기 땅, 땅의 약속. 히브리어 에레츠 (eretz) 에서 땅은 지역적으로 땅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세상, 즉 온 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땅을 상속받겠다는 약속이 온 세상에 적용되었습니다. 즉, 다가올 세상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Paul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이라는 언어는 다가오는 시대의 삶을 표현하는 관용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9-10, 그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15:50, 무엇이 왕국을 상속받을 것인가? 5:21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범하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상속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 문학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는 세상을 기업을 받고, 유대 민족이 들어오는 언어를 연상시키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3:31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이 믿음과 전에 주신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4:14). 여기서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 율법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5절에서 율법의 기능은 의로 여기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긴 선물이라기보다 그렇게 대하는 게 기준이다.

이는 표준이며 우리가 부족할 때 이를 알려줍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4:16). 그 표현은 11장에서 전개된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적 계획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자주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처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축복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3, 18:18, 22:18. 그러나 그는 오히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글쎄요, 창세기에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 전통에서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적 후손이 언약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과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것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수효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유대민족의 수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T Wright는 이 구절과 이전에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내용 사이에 많은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장의 아담 언어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언어를 창조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장에서는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류는 그들의 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인류는 비생산적인 동성 관계에 자신의 몸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적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울이 신자에 관해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창조적으로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4:17. 음, 부활신앙은 그 이후의 신자들에게 신실합니다(4:19와 4:24). 그가 사라의 태의 죽음(4:19)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복하는 믿음은 또한 부활 신앙(4:17)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유지했습니다(18절). 마치 신자들이 5장과 8장에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했습니다(4장 19절과 4장 20절). 어떤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설득당했고, 14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위해 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완전히 설득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기를 거부했고, 디아크리노를 거부했고, 14:23의 신자들은 디아크리노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범위는 영어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의심을 의미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 동일한 용어이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과 배교를 피했습니다. 바울은 현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신자들에게 암묵적인 경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으로 인해 끊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특히 그의 사역 이후에도 이방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1:21). 신자들은 그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 15:6, 9.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대상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입니다. 그는 4장 20절과 4장 21절에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4장 13절, 4장 14절, 4장 16절에서도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1장 2-4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켜 이 약속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을 상속받음(4:13)은 왕국,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들(5:17)과 다니엘 7:14-22의 언어를 예시합니다. 약속된 씨는 더 특별한 씨로 전영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는 9장과 8절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에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되돌아보며 다윗의 자손과 함께 펼쳐진 약속(로마서 1장 3절)과 같은 이후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문맥상 한 명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9장에서 약속된 씨, 그리고 부활 시 4장 24절의 모델로 다스릴 다윗의 집에서 나온 이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과 4장 24절에는 이것의 절정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어났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15장 4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이므로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4장 25절에서 바울은 요약하고 일반적으로 목적격의 의미를 가진 평행절을 사용하지 않지만 단순히 수사적 효과를 위해 이러한 평행절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항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목표 또는 궁극적인 목적론적 원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4:25)과 그의 부활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5장 9절). 바울이 수사학적 균형을 위해 여러 지점에서 강조하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4장 24절과 4장 25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4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 그는 맹인이지만 나의 종과 내가 보낸 사자만큼 귀머거리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항상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을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52장 13절부터 53절까지 12절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의로운 남은 자들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궁극적으로 회고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0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두 배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53장에서는 그의 입에 불의가 없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2.13부터 15까지는 많은 나라 등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구절에는 다음 주장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법이라는 단어 인 파라프토마( paraptoma) 는 다음 장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 단어의 여섯 가지 용도를 준비합니다.

디카이시스(Dicaiosis) 또는 무죄 판결은 파라프토마(paraptoma) 와 대조되는 5.18을 준비하며 범법에 반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원은 5:1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다음 단원은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바로잡혀지고 화해되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 바울은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5.1에 그러므로가 있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4.25에서 그런 말을 했고, 4.24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텍스트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5장 10절).

우리는 그와 화해했습니다(10절과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 25절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합니다(3:22, 3:24, 4:3, 4:16). 제가 모든 구절 번호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하려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논증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과 그의 마음이 성경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훌륭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사 시제에 관해 다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의 완료 시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 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 20절과 14장 4절의 타락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재채기를 했어요. 아, 제가 은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내 말은, 그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4절입니다.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나니

우리는 로마서 11:22 등에서 그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빈주의적  
접근 방식에 따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노미니즘적 접근  
방식에 따라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했는지는 이 시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어떤 본문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어떤 본문은 인간 경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둘 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파악하면 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랑. 글썄요, 당신은 2장 17절과 23절에서 하나님 이나 하나님이나 율법에 대해  
거짓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과 2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자들은  
소망 가운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자랑하며, 우리의 고난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5:3-5. 결국 그는 이것을 5장과 11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비록 모든 번역자들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경우 각각에서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 중에 자랑하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됨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글썄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방금 4.18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소망에 대해 언급한 예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초점은 종말론적 구원, 마지막 구원, 8장 20절,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8장 18절, 21절, 30절).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 영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의 희망.

4:19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5.3.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5:2) 궁극적으로 소망을 강화시키는 고난을 자랑합니다(5:3).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자랑합니다. 일부 철학자와 묵시론자, 그리고 묵시록을 쓴 유대인 작가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극적인 수사적 연쇄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클라이막스 또는 소라이트의 수사적 장치로, 한 가지가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인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는 2장 7절에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모두 이 점에 동의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원하는 부분을 섞어서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15년 전에 누군가와 함께 기도했지만,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반란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 없이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11시 22분에 있습니다. 너희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인되지 않은 아다카모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하노라. 5.4 이미 언급했으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이르면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베드로후서 2장,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읽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믿음을 계속한다면,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에 끼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둘 다 인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받은 품성을 가져오는 고난, 도키메 , 시험을 견디어 낸 것, 5.4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생활의 압력을 통해 참됨이 드러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성장합니다. 우리는 1장과 28절에서 시험에 실패한 아다카모스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키메 입니다 .

그것은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등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성은 그곳에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입증하는 영의 도움으로 증명됩니다(5:5).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시련이 닥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인내할 줄을 믿노라.” 그리고 그 맥락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시다시피 시간의 시험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5:5 그 표현 중 일부는 자신의 희망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편 119편 116절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11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 33절과 10장 11절에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에 속격 구조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은 8장 28절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5시 30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맥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장 35절과 39절에서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는 전도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들이죠. 그 영이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수레를 타라, 아니면 내려가서 너에게 온 이 사람들을 영접하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가장 깊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율법주의적 배경이나 그와 유사한 이유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런 느낌과 인상을 받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녁으로 먹은 음식 때문에 소화 불량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Keener와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그의 말을 다시 들으러 나갔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내 아이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일 저 일을 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내 품에서 도망치나요? 그날부터 나는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처음 사랑에 빠진 십대처럼 다소 수줍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딸아,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을 보십시오.

그분의 발에 있는 못과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창과 그분의 이마에 있는 가시를 보십시오. 피를 보세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그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 구절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를 가리키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치른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아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과 다른 본문, 이사야 32장, 이사야 44장, 에스겔 39장에서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언어를 반영합니다. 성령은 종종 영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단지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에는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힐렐은 성령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그의 세대는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과 5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6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 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셨느니라, 4:25 .

이제 바울은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 좋은 사람을 위해서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를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가치였지만 누가 적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여, 5:8 그는 말합니다. 5:9에서는 진노하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5:10 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들.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설명합니다. 4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 죄함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5장 18절과 19절, 또는 6장 3절부터 10절과 같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5장 9절에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형은 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죽음의 핵심 특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피가 언급된 것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대 신학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불편하게 여긴다. 이를 말하는 바울과는 달리 로마서 9:22, 고린도전서 1:18, 3:17, 8:10, 11:30-32, 빌립보서 1:28, 3:19, 데살로니가전서 1:10, 2: 16, 5:3, 5:9, 그리고 로마서 1:18, 2:5, 2:8, 2:12, 3:5, 4:15. 보세요, 여러분이 진노를 믿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루어야 할 많은 성경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이는 일부 성경적 개념과 기타 고대 개념에 부합합니다. 속죄와 관련된 피를 보고 싶다면 출애굽기 29:36, 30:10, 34:25, 레위기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피, 민수기 16:46. 속죄 제물은 종종 속죄와 연결됩니다. 거기에 예제의 전체 단락이 있습니다. 속건제물도요.

가나안 의식과 헷 족속의 의식에는 대리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이교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에서는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김진태가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요점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장 11절에 섹션 요약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섹션 요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요약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구원도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5장 9절과 10절, 4장 24절부터 5장 25절을 봅니다. 5장 11절의 자량은 5장 2절과 3절의 자량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락의 틀을 잡습니다. 같은 음표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inclusio* 라고 부르지만 반드시 5:1과 5:11 사이에 역평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아담과 그가 묘사한 새로운 아담, 즉 그리스도 사이에 만들어낸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빛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빛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24-5:11의 여섯 번째 세션입니다.